



▶ 2012 대선 개표 분석... 다큐영화 더 플랜

개표과정서 인위적 기획된 비율 발견

“2012년 대선 개표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기획된 비율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제기됐다. 통계적으로 인위적인 숫자가 나온 만큼 해킹 등을 통해 표 분류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어준 총수

‘뽀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자신이 제작한 영화 ‘더 플랜’ (감독 최진성)의 시사회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더 플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된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발견된 통계적 숫자에 대해 분석한 다큐멘터리다. 영화에서는 투표분류기의 미분류표 분류과정에서 발견된 1.5라는 숫자에 주목한다. 통상 미분류표를 분류하면 제대로 분류된 표와 1대 1의 비율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난해 대선의 경우 박근혜 후보의 표의 미

분류표가 문재인 후보의 표보다 1.5배의 비율로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이 전국적으로 빚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나올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기의 분류 과정에서 혼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치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투표분류기서 발견된 ‘1.5’라는 숫자에 주목 박근혜 표 미분류표 문재인보다 1.5 비율로 더 많이 나와

발견 후 시나리오는 미삽입 ‘개표에 사람이 개입하면 안돼 향후 선거서 비슷한 일 벌어지는 것 막기 위한 것’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도 일일이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일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내고 분석한 탓에 자료를 모으는 데만 2년이 소비됐고 이후 2년은 이 같은 경향성을 연구하는 데만 투입됐다. 김어준은 “1.5로 수렴되는 하나의 비율이 나왔고 통계적으로 이 비율은 인위적으로 아니라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는 부분까지만 설명한 채 더 이상의 시나리오는 삽입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나오는 가설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현상만 나열한 거죠. 개표에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발견한 문제점을 공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영화를 만든 의도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결과를 다시 패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금 개표시스템에서는 먼저 기계로 세고 사람이 세요. 하지만 사람이 섰 뒤에 기계로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방식의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개표소의 테이

블 순서만 바뀌도 선거 개입이 불가능하죠. 2012년을 단죄하거나 패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선 인터넷에 영화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개봉보다는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극장 개봉은 인터넷 공개 후에 할 계획이다. 제작비가 4억원인 이번 영화는 1만6000여 명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모은 20여억원 중 일부로 만들어졌다. 나머지 모금액을 통해서 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추적하는 ‘저수지 게임’과 세월호 침몰을 다룬 ‘인턴선’ 등이 추가로 제작 중이어서 그가 기획한 ‘프로젝트 부’의 3부작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진성 감독은 이번 작품을 연출한 데 대해 “1.5라는 숫자가 아니었다면 연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과 출신인데도 그 숫자가 너무 명징했고,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리 같은 것을 일절 배제하고 수학과 과학, 통계와 사이언스만 이야기하겠다는 관점으로만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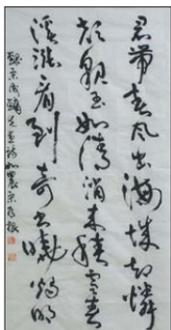
김상휘 소설가, 전북소설문학상 수상자 선정

중견소설가 김상휘 씨가 제6회 전북소설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소설가협회(회장 정영선) 전북소설문학상 선정위원회는 “작품에 나타난 탁월한 심미적 감성과 빼어난 예술성은 물론이고, 1년에 한 편씩 끊임없이 장편소설을 써 낸 소설가로서의 창작열을 높이 산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선정작(소설가·영화감독) 심사위원장은 “김 작가의 소설들은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감각적인 구성과 참신한 소재가 돋보였고, 김 작가의 작품은 영화화 등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의 콘텐츠

츠로도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다”고 평했다. 김상휘 소설가의 작품으로는 병사의 일기, 서울의 달, 서울부엉이, 포장되지 않은 길, 고향을 그리는 수채화, 전설의 타자 엄도치, X-파일 경복궁, 추사의 숨은 꽃, 국종 김정호 등이 있다. 고창출신인 김 소설가는 전북소설가협회(6~10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원, 한국소설가협회회원, 전북문인협회소설분과위원장, 한국예총대의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소설가는 전북대학문학상, 전주예술상, 한국소설가협회특별상, 전북문학상, 한국예총문화대상, 한국농어촌문학상, 한국예총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고창 미당문학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이재원견방’ 송유근씨, 강암서예대전 대상 수상

강암서예학술재단(이사장 송하경)이 주최하는 제18회 강암서예대전에서 송성용의 시 ‘이재원견방’을 출품한 송유근(54·전주시)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이윤정·정민규·이성기 씨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차호준·박광모·최운정·김화옥·조경선·김영수 씨 등 6명이, 특선에는 김해니 씨 등 30명이, 입선에는 유중우 씨 등 9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작지원금은 총 1,000만원으로 대상 1명에 400만원, 최우수 3명에 각100만원씩 300만원, 우수상 6명에 각50만원씩 30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특선 30명과 입선 95명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5월11일 오후 3시에, 수상작(특선 이상) 전시는 5월11~17일 전주 강암서예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강암서예학술재단은 강암선생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강암서예대전 회회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응모자 2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정해은 기자

용신족과 천신족의 대립 강렬한 리듬으로 재구성

아리울스토리3 '해적' 오늘 개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을 11일부터 재개한다. 아리울스토리3 '해적'은 전작 아리울스토리에 동북아의 미래도시 새만금을 보여주는 판타지적 세계 '아리울'을 새롭게 가미했다. 극은 두 부족 용신족(해적)과 천신족의 대립과 통합을 통해 한층 더 강렬한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리울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해적 연합·아리울을 지키기 위해 여전사로 탈바꿈한 아리·장군 미르 등 삼자적 구도로 펼쳐지는 갈등과 역습의 스토리, 캐릭터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난버벌(비언어) 뮤지컬 '해적'은 한국무용·스포츠댄스·마살아츠·타악·퍼포먼스에 최신 미디어 영상을 융합한 미디어를 통해 판타지 공간을 재창조하고 레이저를 활용해 색채의 현란함과 장중함을 더한다. 무대는 해적의 배를 회전무대로 구성하여 박진감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음악은 강렬한 비트의 리듬과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드라마 음악으로 재구성했다. 의상은 백제시대 전통의상의 선과 문양에 판타지 색채를 입혀 화려하고 강렬하게 제작했다. 제작진은 총연출에 김충환, 안무에 최석열, 음악감독 겸 작곡에 김태근, 무대미술에 임일진, 조명디자인에 원동규, 영상디자인에 노호섭, 의상 디자인에 선미수 씨가 함께 했다. '해적'은 11일 오후2시 새만금방조제 내 아리울 예술창고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총 148회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2017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3 '해적'에서 수년간 쌓아온 상설공연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완전판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 환타지뮤지컬 '해적! 심청'은 오는 19일 오후 5시 개막한다. /정해은 기자

부안군 '보며 즐기는 무형문화유산' 8월까지 진행

부안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보며 즐기는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완한 우동리 부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운영된다.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 이은규 선생의 고려 삼각형자의 삼각기법 배우기와 해설이 있는 고려청자 전시 프로그램이 오는 5월 진행되며 예능부분에서는 무형문화재 제43호 가사 김봉기 선생의 선비정신으로 배우는 우리 정가 강습 등이 오는 8월 19일까지 각 분야별로 일반인과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각기법 강좌에서는 고려시대 최첨단기술인 도자기 삼각기법을 응용해 다양한 생활도자기를 만들어보며 잠시나마 옛 도공의 숨결과 장인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이 있는 전시 프로그램은 전시된 고

려 삼각형자 제작과정과 삼각문양의 설명을 사기장에 직접 들고 대화하는 전시장이 마련된다.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나라 전통정가 가사 강습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30여 명의 동호회와 일반인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정가의 고장 부안에서 풍류도 배우고 아름다운 부안의 자연경관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오늘부터 온라인 예매 돌입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폐막작 온라인 예매가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영화제는 개막작인 일디코 엔에디 감독의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이 27일 오후 7시 '전주 돌'에서 상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전주시 영화의 거리 내 5개 극장·19개 상영관에서 229편의 영화가 540여회 이상 상영된다.

티켓 가격은 개·폐막작, 심야상영, 마스터 클래스는 1만2000원이며 일반 및 전주 돌 상영작과 토크 클래스는 6000원이다. 서포터즈, 장애인·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관람객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